

I 이달의 소식

1. 모임안내

1쪽

II 내용

- | | |
|---|-----|
| 1. 노아의 홍수 (12) 현대인과 후기현대인 - 이재만 | 2쪽 |
| 2. Articles (2) 멕시코에서 발견된 노아 대홍수의 증거 - 대구지부 역 | 4쪽 |
| 3.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20) 산을 오르며 - 김경태 | 9쪽 |
| 4. 참 아름다워라! (37) 창세기 대홍수의 성경적 증거 - 창조과학회 | 12쪽 |

인사말



며칠 전 꽃씨를 화분에 뿌렸습니다. 눈썹만큼이나 작은 씨를 지금 뿌리지만 몇 달 후엔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을 고대하면서, '이 작은 씨 안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씨 안에서 적시적소에 일어날 매우 정교하고도 질서정연한 기적같은 사건들(유전정보의 발현, DNA 복제, 세포분열, 신호전달, 세포간의 상호작용 등을)을 생각하면서 생명의 신비를 다시 한번 즐거워했고, 또한 창조주의 엄청난 지혜에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창조과학사역이 눈썹만큼 작을지라도 우리 속에 작은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반드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4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고문 안 복 수 올림 -

1. 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정기 스터디모임(1, 3째주 목요일)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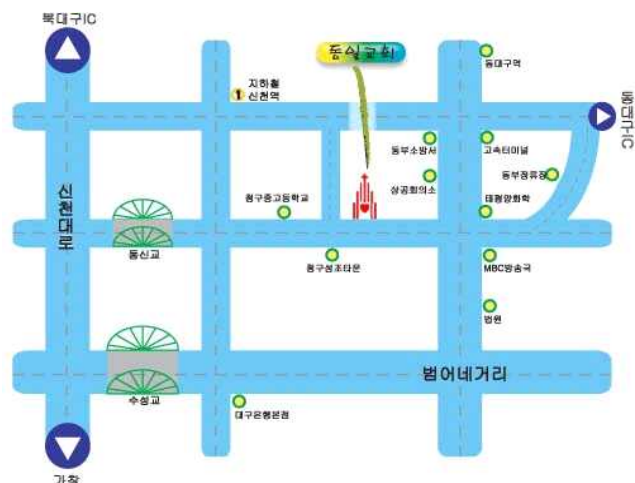
일시: 2008년 6월 5일(목)

장소: 동일교회 복음센터 306호

☎ (053) 743-6058

내용: The Book of Genesis

(by Chuck Missler)



현대인과 후기 현대인 (Modern People & Post-modern People)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현대에 살고 있는가? 만약 현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대의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다. 구분이 그리 쉽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현대(modern time)라고 할 때는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그 전시대를 가리키고, 오늘날은 후기 현대(post-modern time)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리고 후기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또는 철학을 후기현대주의(Postmodernism)라고 한다.

진화론은 16, 17세기의 자연주의나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철학을 발전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자연주의는 한마디로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보고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부속품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는 우주를 물리 화학의 법칙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했고, 당장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있을지라도 후에 가서는 그 법칙을 발견하므로 이해될 것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들은 세상의 진화론적 낙관주의에 영향을 주었는데, 즉 진화론을 사실로 받아들임으로써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점점 좋아져서 유토피아로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화론이 주장하듯이 단순한 세포에서 더 고등한 동물로 진화하듯이 말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부분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거의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다. 또한 이러한 유토피아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의 발전으로 믿어졌었다. 그런데 이러한 낙관적인 생각이 깨어진 것이 바로 1차, 2차 세계대전이다.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이러한 낙관적인 바람은 위협을 받게 되었는데, 핵폭탄이 등장해서 순식간에 수십만의 생명을 앗아갔다. 전쟁, 공해, 과학문명에 대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즉 과학발전으로 유토피아가 건설되리라 하는 기대가 깨진 것이다. 바로 인간의 우상이었던 과학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디에 기대야 할지를 몰랐다. 이렇게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을 겪으면서 1960, 70년대부터 우왕좌왕하며 과학 이외에 다른 곳으로 도피하려는 생각들을 후기 현대주의라 한다.

그래서 후기 현대시대 자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곳을 찾고 싶어 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은 이러한 순간도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이 아닌 바로 동양사상, 아프리카, 인도, 인디안 토속신앙 등에 의지하는 뉴에이지의 방향으로 이끌어갔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에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기회를 사탄이 먼저 자신의 생각으로 이끈 것이다.

진화론은 서양에서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나왔을 뿐이지 성경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들, 또는 성경이 전해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나라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진화론적인 사고를 갖게 되어있다. 이는 창조자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진짜 역사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을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과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음을 모른다면, 그리고 자신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인이라는 것과 그 창조주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른다면,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 길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진화론은 19세기에 나타났을지 몰라도 진화론적 사고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부터 인간에게 시작한 사탄의 전략이다. 피조물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하나의 동물로, 우주의 부속품으로 전락되는 것은 성경을 떠나면 당연히 등장하는 생각이다.

역사학자들이 나누는 시대의 구분이 진화론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지만, 고대나 중세나 현대나 후기현대나 언제나 답은 성경에 있다.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답 놓고 비교하지 않는 이상 이는 망망대해 가운데 뗏목밖에는 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을 전해주고 싶어 하셨다. 우리가 정말로 자신의 형상으로 귀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만큼 우리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으셨다. 그래서 완전한 사실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 디모데후서 3:16, 표준새번역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and profitable for teaching,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training in righteousness; - 2 Timothy 3:16, NASB

출처: <http://kacr.or.kr/library/itemview.asp?no=2225¶m=type=C|authorname=이재만> **참조**

멕시코에서 발견된 노아의 대홍수에 대한 새로운 증거 (New Evidence of Noah's Flood from Mexico)



벨라프론스 코아후일렌시스 추정도

(Artist rendering of *Velafrons coahuilensis*)

Image from

<www.centralpt.com/pageview.aspx?id=21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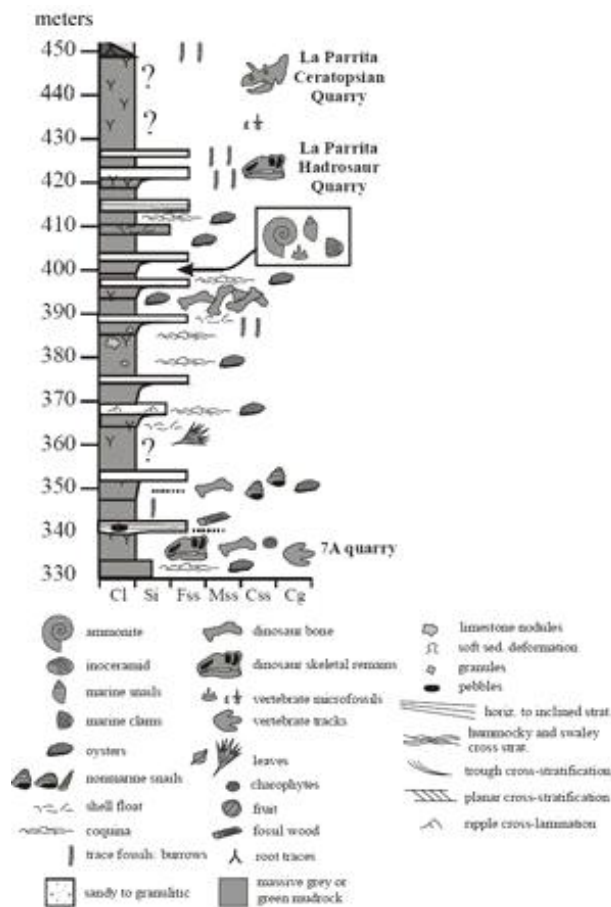
멕시코에서 발견된 새로운 공룡화석은 지질작용의 규모뿐만 아니라 노아 대홍수의 격변이 얼마나 엄청났는가에 대해 생생한 통찰력을 준다. 유타 자연사 박물관의 과학자들이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그 사건으로 죽은 생명체 중의 화석화된 공룡,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공룡 종을 발표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벨라프론스 코아후일렌시스(*Velafrons coahuilensis*)라고 불렀다.

물론, 그 팀은 대홍수라는 틀 내에서 그 증거를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팀은 그 화석이 북아메리카 서부지역의 고대 환경에 대해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하기를 바랄 지라도, 그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노아의 대홍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언급 없이 유럽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과 비슷하다.

빠른 퇴적 (Rapid sedimentation)

그 공룡 골격은 멕시코 중북부, 코아후일라 주의 린콘 콜로라도(Rincon Colorado)라고 불리는 작은 읍 부근에 있는 살틸로(Salttillo)로부터 서쪽으로 약 27 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서 1990년대에 발굴되었다. 그 피조물은 머리에 작은 돛처럼 보이는 커다란 뿔(crest, 골절)과 하드로사우루스, 즉 오리주둥이를 가진 공룡이었다.

에버스 등의 도해 (Diagram after Eberth, D.A., et al., ref. 3)



벨라프론스 코아후일렌시스와 다른 공룡 화석들이 발견된 세로 델 푸에블로 층(Cerro del Pueblo Formation)의 퇴적층 한 부분. (Cl=점토암; Si=미사암; Fss=세립질 사암; Mss= 중립질 사암; Css=조립질 사암; Cg=역암). 서관(burrows-퇴적물 속에 동물이 살기 위해 점유하고 파 놓은 구멍)으로 해석된 수직적인 흔적화석은 오히려 탈수관일 수도 있다.

(Part of the sedimentary section of Cerro del Pueblo Formation in which Velafrons coahuilensis and other dinosaur fossils were found. (Cl=claystone; Si=siltstone; Fss=fine grained sandstone; Mss= medium grained sandstone; Css=coarse grained sandstone; Cg=conglomerate). The vertical trace fossils interpreted as burrows could rather be dewatering tubes.)

비록 그 동물이 죽었을 때 어렸을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25 피트 정도 길이였을 것이다. 그것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신속히 묻혀야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한 양의 퇴적물을 필요로 한다.

그 동물의 화석이 묻혀있는 퇴적층은 두꺼웠다. 그것들은 세로 델 푸에블로 층이라고 불리는 퇴적층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의 특성은 엄청난 규모의 물로 인한 격변이 수반된 어떤 것을 지시한다.

고해류 분석(Paleocurrent analysis)에 따르면 층을 구성하는 엄청난 양의 퇴적물이 넓은 지리적 지역에 걸쳐 거대한 관상으로 퇴적되는 동안에 홍수물이 동쪽으로 흘렀다.

살틸로(Salttillo)로부터 동서로 70km에 걸쳐 층의 두께는 서쪽으로 약 500m 로부터 동쪽의 150 m 까지 다양하다. 세로 델 푸에블로 층은 광대한 파라스 분지(Parras Basin)에 수백 킬로미터 두께로 퇴적된 훨씬 더 넓은 퇴적층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거대한 두께의 퇴적물은 해수면이 계속해서 상승해서 필요한 퇴적물을 공급하는 지역이 아니라면 그렇게 쌓일 수가 없을 것이다.

물의 흐름은 다른 층들의 특성에서 보여주듯이 퇴적이 일어나는 동안 매우 다양했을 것이다. 평행 사층리(planar cross-stratification), 곡형사층리(trough cross-stratification), 연흔에 의한 사엽리(ripple cross-lamination)를 포함하여 지층 내의 사층리에 대한 풍부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강한 수류를 가리킨다.

일부 사암층에는 잔자갈(pebbles-직경 4-64mm 범위)과 왕모래(granules-입도 2-4mm 범위)가 들어 있는데, 그것도 또한 수반된 물의 흐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물의 힘에 대한 또 다른 암시는 각 층의 두께이다. 사암층은 종종 괴상으로(massive-암석학적으로 층리, 편리, 엽상조직이 보이지 않는 균질한 암석의 구조) 두께가 수 미터이다.

수많은 상향 조립질인 수 미터 두께의 괴상의 이암(mudstone-점토나 실트가 압력 등의 작용에 의해 고결된 암석)이 있는데, 이것은 반복적이고 엄청나며 광대한 이류(mudflows)를 의미한다.

층들은 종종 ‘부드러운 퇴적변형(soft sediment deformation)’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그것들이 퇴적되고 고결되기 전에 층이 너무나 급격히 쿵 떨어지면서 움직여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광범위한 파괴 (Widespread devastation)



벨라프론스 코아홀리엔시스의 재구성된 두개골
(Reconstructed skull of Velafrons coahuilensis.)

Image from

<www.centralpt.com/pageview.aspx?id=21220>

퇴적물을 퇴적시킨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폭풍우와 홍수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생명체의 환경(living environment)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하다. 벨라프론스라는 하드로사우어가 문혔을 뿐만 아니라 두 개의 거대한 뿔과 긴 골질 주름(bony frill)을 가진 트리케라톱스와 유사한 뿔이 있는 공룡으로 두 번째 종류의 오리주둥이 공룡도 발굴되었다. 그들은 또한 몇몇 커다란 (T. rex와 관계있는) 티라노사우루스와 벨로시랩터와 같이 발에 갈고리형의 발톱이 있는 더 작은 동물들도 발굴했다.

공룡 화석은 골격들이 분리된 채로 문혔을 뿐만 아니라 오리주둥이와 뿔이 달린 공룡들의 뼈가 서로 모두 다 뒤엉킨 채로 들어있는 거대한 층도 발굴되었다. 팀장인 테리 게이츠(Terry Gates)는 그 지역이 많은 수의 보존이 잘 된 양질의 공룡 화석들을 상당히 풍부하게 산출한다고 말하였다.

그 격변은 땅과 바다 양쪽 모두에 영향을 주었다. 그 층에서 발굴된 다른 척추동물 화석들로는 거북이, 물고기, 도마뱀이 포함되는데, 그것은 육상 및 해성 동물 모두를 함께 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로 텔 푸에블로 층에는 또한 달팽이 화석, 바다에 사는 대합, 암모나이트, 바다에 사는 달팽이, 굴, 민물 달팽이, 나무 화석, 나뭇잎, 과실이 포함된다. 다시, 육상 및 해성 생명체가 같은 층 내에 들어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What happened?)



벨라프론스 코아후일렌시스가 발견된 곳의 현장팀
(Field crew at site where *Velafrons coahuilensis* was found.)

Image from

<www.centralpt.com/pageview.aspx?id=21220>

조사자들은 그 지역에서 발견되는 주목할 만한 증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노아의 대홍수를 무시함으로써 그들은 그럴싸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하여 몹시 곤란한 처지에 몰렸다. 퇴적암은 대량의 죽음을 수반하는 거대한 물에 의한 격변을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하나 그들은 오늘날의 사건과 유사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왜곡했다.

그 팀은 그 사건이 저지대의 범람을 유발한 높은 해수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백악기는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높은 기간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강한 폭풍우가 수 마일에 걸친 비옥한 해안선을 파괴시키면서 전 공룡 떼들을 멸종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폭풍우가 오늘날 아프리카와 남미의 남단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풍우와 같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폭풍우는 물고기, 도마뱀, 조개, 나무 및 나뭇잎들과 더불어 악어와 같은 전체 동물 떼를 죽여서 묻지 않는다. 그러한 폭풍우는 수 미터 두께의 진흙과 모래로 된 층 내에 묻힌 동물 묘지 내의 그러한 피조물들의 화석을 보존하지 않는다. (But storms in these areas do not kill and bury entire herds of animals, such as crocs, along with fish, and lizards, shells, wood and leaves. Such storms do not preserve the remains of such creatures in animal graveyards buried in metre-thick layers of mud and sand.)

지질단면도에 표시되어 있는 그 시간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동물들이 그렇게 느린 퇴적 속도로 묻혀서 보존될 수 있는가?

물론, 퇴적물의 급격하고 격변적인 퇴적은 그것들이 쌓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그 퇴적층에 매겨진 7천2백만 년이라는 시대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발견된 화석들의 종류들에 근거한) 표준 지질주상도로부터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층서 자료(magnetostratigraphic data-상하위 층서단위와 지자기의 성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를 기준으로 나눈 층서의 자료)에 근거해서 매년 0.55mm 씩 형성되는 평균퇴적속도에도 문제가 있다.

지질단면도에 표시되어 있는 그 시간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동물들이 그렇게 느린 퇴적 속도로 묻혀서 보존될 수 있는가?

대홍수 단계의 끝을 향해서 (Towards the end of the inundation stage)

성경적 틀, 즉 역사적으로 기록된 목격자의 설명 내에서, 퇴적물은 노아시대의 대홍수의 결과로 쌓였을 것이다. 그것들이 천지창조 당시에 어떠한 죽음이나 고통도 없었으므로 따라서 화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천지창조주간 동안의 사건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들은 또한 퇴적물의 순전한 지리적 넓이와 물리적 두께 때문에 대홍수 전이나 후에 퇴적된 퇴적물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그 지역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군에 의해서 보여주듯이 육상 동물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퇴적물이 지구상에서 홍수물이 상승함에 따라 퇴적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퇴적물들은 홍수물이 전 지구를 덮기 직전에 퇴적되었을 것이다.

(Within a biblical framework, that is, the historically documented eye-witness account of history, the sediments would have been laid down as a result of Noah's Flood. It's clear that they do not represent events during Creation week because there was no death or suffering at that time, hence no fossils. It's also clear that they do not represent sediments deposited before or after the Flood because of the sheer geographical extent and physical thickness of the sediments. We can conclude that the sediments were deposited as the floodwaters were rising on the earth, because the land animals were still alive, as indicated by the assemblages of dinosaur trackways found in the area.⁸ It's likely that these sediments were deposited just before the time when the floodwaters covered the entire earth.)

멕시코에서 발견된 새로운 공룡과 그것과 관련된 지질학적 조사내용은 과거의 사건들에 새롭고 흥미로운 창을 제공한다. 그것들은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의 물에 의한 격변인 노아의 대홍수와 관련된 상황과 파멸에 대해, 그리고 그 사건으로 죽은 동물들의 종류에 대해 생생한 통찰력을 나타낸다.

원문출처: <http://creationontheweb.com/content/view/5639/> **참조**



산을 오르며

토요일 오후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곳에 있는 야산에 올랐다.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며 오를 수 있는 산이 널려 있는 우리나라는 진정으로 복 받은 나라이다.

다리 근육에 힘을 주면서 한 걸음 한걸음 떼어 놓으면 숨이 가빠오기도 한다.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내려다 보이는 들판과 점점이 박혀 있는 집들을 바라보며 눈앞에 펼쳐지는 풍광에 감탄한다. 울창한 나무들에 의해 퍼져가는 나뭇잎 소리, 깊이 패여 가물거리는 골짜기, 올라가는 길 옆 감나무 꼭대기에 따지 않은 감들이 아직도 주렁주렁 매달려 새들의 먹이가 되곤 한다.

이렇게 우리가 산을 오르며 위로 한없이 올라간다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기압과 관계가 있다. 기압은 공기의 무게로 인해 나타나는데 1기압은 1cm^2 면적에 약 1033.6g의 공기가 누르고 있는 힘을 말하는데 기압단위로 표시하자면 1033hpa(헥토파스칼)이 된다.

공기도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몸의 안쪽과 바깥쪽이 공기로 채워져 바깥에서 누르는 기압만큼 몸 안의 공기도 같은 힘으로 밀어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비행기를 탈 때 이륙하게 되면 귀가 멍멍해지는 경험을 한다. 이는 고막 안쪽의 공간에 작용하는 기압은 1기압으로 그대로 있는데 반해, 바깥쪽의 공기는 비행기의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압이 낮아져 양쪽의 기압에 차이가 생겨 나타나는 현상이다.

땅에서 사는 우리가 느끼는 기압은 지표면에서 대기권 꼭대기까지 존재하는 공기의 무게로 인한 것인데 위로 올라가게 되면, 높이 올라 갈수록 그 높이만큼 공기의 양이 적어져 누르는 힘이 적어진다.

실험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간이 특별한 장치를 하지 않고 등반할 수 있는 최대의 높이는 1만 2,000m 정도이다. 그 이상의 높이가 되면 지표면의 기압보다 8배 이상이나 낮아지므로 비록 공기가 여전히 많이 존재하더라도 기압이 약하기 때문에 공기를 폐 속으로 밀어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1만 2,000m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8,848m의 에베레스트 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조차도 극히 드물다. 이처럼 높이 오른다는 것은 어렵고도 힘든 일이다.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산을 부지런히 타는 훈련을 해야 가능하다.

예순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등산을 시작해서 꾸준히 훈련을 하였다. 그래서 66살에 북미에서 가장 높은 4,797m의 휘트니 산의 정상을 오른 분이 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은 훌다 크룩스*라고 하는데 1987년 7월 24일에는 91살의 나이로 4,955m나 되는 일본의 후지산의 정상에 섰다. 크룩스 할머니는 81세에서 90세까지 10년 동안 무려 97개의 봉우리를 올랐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는 1991년에 휘트니 산의 봉우리 하나에 크룩스 봉이라고 이름을 붙여 할머니를 기념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쇠퇴한다. 힘을 받지 않는 뼈는 미네랄을 잃게 되어 약해지게 된다. 둔해졌다는 것은 그대의 몸이 민첩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참으로 대단한 할머니라고 생각된다.



* Image from <<http://www.llu.edu/news/today/dec3/crooks.jpg>>

Hulda Crooks (May 19, 1896 - November 23, 1997) was an American mountaineer. Affectionately known as "Grandma Whitney" she successfully scaled 14,505 foot Mt. Whitney 23 times between the ages of 65 and 91. She had climbed 97 other peaks during this period.

In 1987, at the age of 91, she became the oldest woman to complete the ascent of Mt. Fuji in Japan.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결국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위대한 신앙의 삶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부모 형제들과 함께 잘 살고 있었으나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떠났다. 그에게 있어서 가족과 친척들은 그를 보호해 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디뎠다. 이는 참으로 건디기 힘든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고독한 길이었을 것이다. 알지 못하는 타국에서 어떤 일을 당할 지 마음의 공포를 누르며 길을 떠났다. 그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반면에 에덴 동산의 아담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건드리고 말았다. 단 한 가지 외에는 에덴의 식물, 과일, 동물 등 아담이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말해서 에덴의 모든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무한대의 권리를 누렸는데 여기에 비하면 단 한 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거의 무에 가까웠다. 수학적으로도 무한대 분의 1은 영이다. 그런데 아담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무한대에 해당하는 자유를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그것도 겨우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 선악과를 기어코 골라서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인간 타락의 원인 제공자가 되었다.

머리로 는 이해하지만 이를 몸으로 실천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한 신앙의 삶이 되고 만다. 주일날 전국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말씀의 홍수 속에 있고 또한, 수시로 읽고 묵상하는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도, 마음의 느낌으로만 남아 있고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에 맴돌 뿐이다. 영적인 나의 모습을 볼 때 머리만 크고 몸은 왜소해서 비정상적으로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거나 않은지 걱정이 된다.

신앙은 수레바퀴와 같다. 중심축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바퀴의 테와 같다. 수레바퀴의 테가 약하거나 없으면 굴러가지 못하고 전진할 수 없다. 산을 오르고자 할 때 산의 정상만 쳐다본다고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상을 정복할 수 있는 등반로가 몇 가지나 있고 그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 얼마나 험난한 코스가 되는지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해서 정상에 서는 것이 아니다. 산 아래에서부터 한 걸음씩 정상을 향해 걸음을 옮겨 놓아야 가능한 일이다. 산을 오르는 일은 편하고 쉬운 일만은 아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 혈떡이며 땀을 비지처럼 흘려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꾸준히 오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놀라운 것이다.

크룩스 할머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포기할 나이였지만 매일 산을 오르며 단련 하였기에 94세의 나이에 도 불구하고 18세 소녀의 심장과 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욱 순종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실천할 때 오는 기쁨은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커질 것이다.**

오늘도 말씀이 주는 교훈대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최선을 다해 신앙의 산에 오르길 결심해 본다. 주님께서 칭찬하실 정상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출처 :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중에서 창조

창세기 대홍수의 성경적 증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노아의 홍수는 결코 지역적이 될 수 없고, 전 세계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 표면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증거물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적 홍수였음을 입증하는 사실들 중에서 성경적 증거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세기의 대홍수의 크기와 기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로 인하여 천하에 높은 산이 다 덮였으며, 홍수가 1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역적 홍수도 1년간 지속된 경우가 없으며, 성경에서도 노아의 대홍수를 지칭하는 히브리어로 ‘맛뿔’ (mabul)*이라는 용어로 지역적 홍수를 나타내는 단어와 구분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Mabul은 히브리어인 'yabul'에서 파생되었는데, 그 뜻은 '엄청나며 맹렬함을 가진 흐름'이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에서 단지 11번이 나온다. 각 단어들은 모두 창세기 홍수와 관련되고, 하나만 제외하고 모두 창세기에서만 나온다. (창6:17, 7:6, 7:7, 7:10, 7:17, 9:11, 9:28, 10:1, 10:32, 시29:10).

구약에서 그 밖의 홍수들은 다른 단어인 'setep'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역적인 홍수를 묘사하고 있다. (시32:6, 나1:8, 단9:26, 단11:22, 욥38:25).

2) 창세기의 대홍수가 지역적이라면 거대한 방주를 지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방주의 규모는 한 지역에 분포된 동물만을 싣기에는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만일 지역적 홍수였다면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은 고산지대로 피하든지 이웃지역으로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양 크기의 동물을 12만 마리 이상 실을 수 있었던 43,200m³의 용량을 가진 거대한 방주를 축조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3) 창세기의 대홍수가 지역적이라면 모든 동물을 방주에 태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동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종류대로 동물들을 태울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리고 노아가 사는 중동지역에서만 사는 동물이 있어 구해내야 한다면 방주를 그렇게 크게 건조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4) 창세기의 대홍수가 지역적이라면 굳이 새들을 방주에 태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 시 새들은 다른 지역의 산으로 날아가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 예수님과 사도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베드로(벧후 2:5, 3:6)와 바울(히11:7)은 물론,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대홍수가 온 인류를 멸망시켰다고 증언하고 계십니다(눅17:26~30).

* 벧후 2:5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 벧후 3:6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 히 11: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 눅 17:26~30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6) 창세기의 대홍수가 지역적이라면 홍수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어긋나며, 장차 예수님의 재림 시 심판을 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7) 창세기의 대홍수가 지역적이라면 하나님이 다시는 모든 생물을 대홍수로 멸하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발생하는 커다란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과 동물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창조퀴즈>

창세기의 대홍수가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 역사적 사실임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참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ssoya89@hanmail.net)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